

청소년범죄의 흉악화와 성범죄 원인에 관한 고찰

전 광 문*

- I. 서 론
- II. 청소년범죄의 양상변화와 실태분석
- III. 청소년범죄의 흉악화 원인
- IV.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분석
- V. 청소년범죄 방지를 위한 방향모색

I. 서 론

오늘날의 청소년비행과 범죄의 양상은 날로 흉악화, 포악화, 잔혹화 해가고 있다. 대체로 급격한 공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진국, 개발도상국의 산업사회에서는 산업발전을 기초로 한 대량생산방식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대량소비의 확대를 필요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상품구입의 욕망과 오락위주의 욕망추구가 높아지며, 매스미디어를 통한 상업주의적 대중문화가 향락풍조, 이기주의적인 양태로 변모하여 종래의 생활양식이나 가치체계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 이 결과 마침내는 자기의 신분

과 분수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무턱대고 욕망만 충족하면 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오늘날의 잘못된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청소년범죄는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주로 절도범죄가 주종을 이루고 거기에 폭력범죄와 성범죄가 다소의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으나 1970년 중반에는 폭력범죄와 성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 1980년도 후반에 와서는 청소년범죄가 질적으로도 흉악해져 이제는 위험수위를 넘은 사회문제로 등장되었다. 미성년자이기도 한 청소년들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끔찍한 범죄사건들은 단순한 범죄성을 넘어서 우발적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 인신매매, 가정파괴, 본드나 마약복용, 집단강간, 어린이 강간, 패싸움 등 성인범죄를 모방한 듯한 흉악한 범죄현상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범죄가 성인범죄와 다른

*서울 한국청소년지도육성회 교양지도부장

점은 성인범죄는 자유경쟁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한 수단화인데 반해 청소년범죄는 미성년자로서 청소년기 특유의 욕구충동구조와 심리적 특성에 비추어 집단암시성이 강하고 시각중심적이며 힘과 파괴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범죄에 대해 해방후 지금까지의 양상변화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어떻게 흉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해명하고 그리고 흉악화에 따르는 과정과 원인 및 특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을 통해 앞으로의 범죄방지를 위한 처방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청소년범죄의 양상변화와 실태분석

해방후 45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커다란 변혁과 변천을 겪어왔다. 해방후의 낙후된 빈곤시대를 시작해서 그후의 6·25사변, 4·19, 5·16의 혁명시대의 혼란기를 거쳐 5공화국, 6공화국의 격변기를 맞으면서 우리나라는 선진대열에 진입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급격한 변혁과 변천과정에서 긍정적인 성과와 발전이 있었으나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게 도출되었으며 그중의 하나가 청소년범죄의 흉악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청소년범죄는 현재까지 어떤 양상을 띠고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 해방후 현재까지 45년간에 나타난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양상, 그리고 변화과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의 흐름은 8·15해방과 6·25동란을 거쳐 자유당 말기까지의 단계(1945~1959)이다. 8·15해방과 더불어 1950년대의 경제적, 사회적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에 못미치고 미국에서 보내오는 구호양곡과 물자에 의존해야 하는 이른바 경제적 빈곤시대로 표현된다. 이 시기의 우리의 생활환경은 굶주림을 탈피하기 위한 의식주 해결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당면과제였다. 거기에 6·25동란으로 인한 막대한 전재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전쟁고아, 인명상실, 가옥파괴 등이 겹쳐서 극도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 시기의 범죄현상은 성인의 재산범죄가 증가함과 아울러 청소년범죄도 절도범죄가 주종을 이루면서 절도일변도의 증가추세를 보인 시기이다.

제2의 흐름은 4·19와 5·16을 거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진행시킨 1960~1969년의 소위 1960년대를 가리킨다. 이 시기의 초기에는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군사정부의 사회악제거를 위한 폭력배에 대한 과감한 응징책과 산업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경제적 발전의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범죄현상은 절도범죄가 1950년대에 비하여 거의 5배, 폭력범죄는 무려 14~15배의 급증세를 보였다. 절도범죄와 폭력범죄의 급상승은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급변 정세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주요 범죄중 폭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져 1965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별법이 새로 제정되는 등 강력한 법시행에도 증가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의 흐름은 1970~1979년까지의 70년대를 들 수 있다. 이 기간동안의 청소년의 범죄동향을 보면 1960년대에 평균 3만5천명 선에서 197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 거의 6만명 선으로 상승하게 되며 또 범죄유형으로 보더라도 종래

의 절도·일련도의 범죄양상이 1975년을 기점으로 폭력범죄가 절도범죄를 상회하여 청소년범죄의 주종을 이루는 나타났다.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에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흉악범죄가 전례없는 급증세를 보여 새로운 주요 범죄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아울러 공업화의 기반구축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시기로 높은 GNP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산업구조의 혁신과 도시화의 진전 및 개발,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추진 등에 힘입어 국민경제가 크게 향상되는 중진국으로의 도약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발전과정에서 부산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사회적, 도덕적 타락현상이다. 부동산투기에 의한 일확천금의 재산증식,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성향의 증가,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풍조가 만연됨에 따라 각종 유해유흥업소가 독버섯처럼 생겨났다. 이같은 사회풍토 조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개방풍조와 퇴폐풍조에 물들지 않을 수 없는 사회병리적 주변현상으로 청소년범죄도 심각한 양상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제4의 흐름은 1980년대 즉 1980~1990년 까지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큰 변화는 80년대 초의 “광주민중화운동” 그후에 나타난 운동권 학생의 과격한 데모사태, 6공시대를 전후하여 6·29 민주화 선언 등으로 나타난 격동기를 들 수 있다.

한동안 주춤세를 보였던 폭력범죄와 절도범죄의 수는 80년대에 들어와서 재차 급증세를 보였고 그것이 1984년을 기점으로 다시 둔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강력범죄의 증가이다. 강도범죄는 70년대에 800

명선이던 것이 2,000명 선으로 급증했고, 강간범죄는 1,000명 선에서 80년대에는 3,000명 선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청소년범죄의 양상은 갈수록 강력범죄화, 또는 흉악범죄화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 왔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학생범죄의 증가추세이다. 물론 학생인구의 자연증가와 관계가 없지 않으나 전체 청소년범죄중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1975년에는 15.8%이던 것이 1980년에는 30.3%, 1985년에는 40.8%, 1989년에는 48.5%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데 지금까지의 관례가 학생이라면 건전청소년 층으로 보아온 우리로서는 학생층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특히 80년대 후반기에 보여주는 성인범죄의 수법과 양상은 과거의 일반적인 수법과는 달리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마저 의심케 하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살인사건을 자행함에 이르렀다. 이같은 흉폭한 현상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는 일로서 최근에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는 범죄수법과 양상도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듯한 흉악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의 치안본부가 발표한 1983~1987년까지 5년동안의 청소년범죄 분석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청소년범죄자가 주로 결손가정의 자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친부모가 있는 정상가정의 자녀들에 의한 범법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예전과 상반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자료에서도 범죄성향이 갈수록 집단화, 흉폭화하고 있으며 범행동기도 죄의식 결핍과 정서불안에 따른 사행심, 호기심 충족이 주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동향은 사회변

천과정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범죄양상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III. 청소년범죄의 흉악화 원인

최근 우리 사회는 흉악범죄의 급증, 노사문제, 학생데모, 각종 민원집단행동, 과소비사치풍조, 마약남용 등 여러 문제를 노정하는 사회병리적 현상과 사회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80년대 말부터 새로운 현상으로 보다 심각한 국면으로 돌입한 것은 범죄의 흉악성이 극악무도하여 백주에도 강도살인, 강간살인, 유괴살인, 인신매매 등이 버젓이 횡행하여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태이다. 이같은 현상은 사회전체를 혼란과 긴장을 조장케 하며 공동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마저 상실한 혼란상태에 처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3일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이란 특별선언을 함에 이르렀다.

청소년범죄의 특징이 흉악화하고 집단화 하고 연소화 하는 경향도 80년대 후반에 걸쳐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청소년범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두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오늘의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청소년기의 위기심리와 흉악화 특성이 무엇인지와, 다른 또 하나는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반다리즘의 특징을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1. 청소년기의 위기심리

청소년문제를 논의할 때 과거에는 청소년심

리학, 즉 청소년기의 발달심리를 해명하고 개인심리적 차원에서 청소년문제의 모습을 강조하여 왔으나 현대는 사회속에서의 청소년심리를 해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현대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기성의 사회질서와 가치체계가 붕괴하여 청소년의 주변상황은 대폭 달라지고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상황 가운데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여러가지 모순, 결함, 부조리 등의 갖가지 병태가 집약적으로 사회에 노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은 탈문명의 움직임이나 비행, 범죄 등의 일탈행동, 폭력화 경향, 퇴폐행위 등의 반사회적 행동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어 그 문제의 소재와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청소년기의 탈출형태

오늘의 청소년들은 복잡한 사회환경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행동양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일상생활 즉 가정, 학교, 직장, 사회의 모든 곳에서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가능하면 도피와 비협조로 자기소의 속에서 지내려고 한다.

② 실생활과 다른 청소년만의 세계에서 인생을 즐기려 하여 기성세대와 격리하는 생활방식을 취하고 있다.

③ 일상생활에서 부자유한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능하면 여행, 등산, 방랑, 가출하는 버릇이 있다.

④ 소외와 자기상실을 카버하기 위하여 술, 담배, 디스코장 출입, 본드 및 대마초 남용 등으로 환각의 세계에 몸을 파묻히려 한다.

⑤ 히피족이나 펑크족과 같이 탈문명 또는 반문화적 형태로 그들만의 별개의 세계에서 생

활하려고 한다.

⑥ 현실탈출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사회전반에 대한 반발이나 반항 또는 일탈행동, 범죄행동, 남녀혼숙 등과 같은 반사회적 문제행동에 빠져든다.

2) 청소년기의 위기요인

① 가정의 해체와 아버지상의 붕괴를 든다. 도시화의 진전과 핵가족화의 이행은 종래의 가부장제 중심의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부부중심의 소가족제도가 형성됨에 따라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마저 도구적 존재로서의 기능밖에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동시에 가족 이기주의로 흐르게 되고 양육체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단절과 무규범적인 갈등의식을 조장하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위기심리를 느끼는 요인이 되었다.

② 최근의 기술혁신과 학교교육의 발전은 고학력시대를 낳았고 따라서 부모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무력화 해지고 새로운 기술과 고등교육을 받은 자식에게 바보취급을 당하게 되어 옛날과 같은 지도권과 존대받는 부모상은 상실되었다. 따라서 자식들은 부모 보다는 친구나 동료를 따르게 되어 불량교우, 비행집단, 범죄집단, 폭력조직 등에 의한 무규범적 영향을 받아 쉽게 반사회적 일탈행동을 하기 쉽다.

③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이 고아신세라고 생각한다. 부의 체통이 무너지고 생존에 쫓기는 도구적 존재로서의 아버지는 자연히 자녀에 대한 무관심, 애정과 이해부족, 대화단절 상태까지 가져온다. 반면에 가정에서 정서적 기능과 역할을 맡은 어머니는 과도한 교육열과 과보호

로 인해 자녀들로 하여금 고아 같은 심정을 갖게 한다. 이렇게 자란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직장, 사회전반에 걸쳐 인간관계의 부적응, 욕구좌절, 정서불안정 등으로 발생하며 이것이 범죄행동이나 흉악폭력을 하게 된다.

④ 바람직한 이상상의 미정립이다. 과거에는 근면·성실·정직·겸손 등의 가치와 강·미·용·현 등이 이상적인 가치기준의 덕목이 정립되어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돈, 스킬과 모험, 유흥과 놀이, 사회적 인정(자기과시)등이 젊은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로 변했다. 정보화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은 영화, TV, 잡지, 신문 등의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는 폭력적인 장면, 선정적인 섹스, 퇴폐행위, 범죄기사 등으로 충만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 청소년에게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면보다 왜곡되고 오도된 “허상”을 형성시켜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2. 청소년범죄의 흉악화 특성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에 들어와 청소년범죄의 폭력화, 흉악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태와 원인분석을 위하여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필자를 위시한 연구팀은 1977년 8월에 전국의 소년교도소, 소년원에 수용된 강력범, 폭력범, 절도범 4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결과에서 얻은 각종 사범의 생활특성과 흉악화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범죄소년의 생활특성

① 전체 범죄소년중 실부모중 일방 또는 쌍방의 결손으로 나타난 것은 56.9%이었고 그중 실부의 결손은 약 30%, 실모만의 결손은 약 20%이었다. 최종별로 보면 폭력범은 실부결

손, 절도범은 실로결손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② 생활정도에서 가정빈곤은 강력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중에도 강도범은 더욱 심했다.

③ 부모간의 화목도를 보면 강감범을 제외한 다른 범죄소년은 화목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아버지에게 대해 원망스럽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특히 폭력범의 경우였고 이와 반대로 절도범은 어머니를 원망스럽다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⑤ 폭력범과 강도범은 가정의 문제점으로서 부모의 애정부족과 이해부족 가정빈곤을 들었으며, 살인범은 교육의 무관심을, 강간범은 주거환경의 불량을 들고있다.

⑥ 부모에게 반항할 때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특히 폭력범의 경우 다른 범죄소년보다 밀대답질, 덤벼든다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이들은 일찍부터 포악한 성격을 형성하는 것 같다.

⑦ 범죄소년 전체의 70%내외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출과 범죄행위와는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⑧ 빈번한 전직회수(轉職回數)의 경험은 강력범이나 폭력범에 비해 절도범의 경우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성격형은 강간범이 88.2%, 폭력범이 83.7%인 것으로 나타나 흉악범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성격형을 가진 자이다.

2) 범죄 소년의 흉악화 특성

①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에 비하여 폭력범과 절도범에서 재범이상자가 많았으며, 또 15세 이전의 조발비행(早發非行)도 훨씬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② 재범이상자인 경우 범죄행위의 경향을 보면 절도범은 단일범죄, 폭력범은 동종범죄 또는 이종범죄(異種犯罪)이고, 강력범은 이종범죄가 절대적으로 많았고 다종범죄(多種犯罪)도 적지 않았다.

③ 범행동기는 강력범과 절도범은 용돈마련, 생활비 마련, 유흥비 마련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폭력범은 스틸과 영웅심, 별이유없이 답답한 심정의 분풀이가 높은 동기로 작용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강력범중 강간범은 성적 욕망, 스틸과 영웅심이 높았고, 강도범은 용돈 마련, 생활비 마련, 유흥비 마련이 높았고, 살인범은 별이유없이 높은 동기로 작용했다.

④ 범죄소년 자신이 생각하는 범죄유발 및 촉진요인으로 드는 것은 불량교우, 사창가 출입, 가재지출 등을 들었으며, 범죄행위를 하게 된 데는 반수이상이 친구탓으로 돌리고 있다.

⑤ 범행시의 두려운 대상은 누구이냐에 대해서 대체로 전과자 낙인과 경찰서를 들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두려움은 의외로 낮게 나타난 것을 주목되는 사항이다.

3. 반다리즘의 특징

반다리즘 *vandalism*이란 문자 그대로 폭력주의, 폭악주의, 흉악주의, 파괴주의, 야만주의, 살인주의 등으로 풀이된다. 구미학자들은 오늘날의 세계가 살벌하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살인행위가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상을 가리켜 반다리즘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전 반다리즘 현상은 구미사회에서 시작하여 중등, 중남미, 일본을 거쳐 80년대에 우리나라에까지 침투되었으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인범죄가 반다리즘 현상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청소년범죄에서도 반다리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살인행위나 흉악한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인의 성격을 가리켜 심리학자들은 반다리즘 성격의 소유자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면 반다리즘의 특징은 무엇인지 흥미해볼까 한다.

1) 파괴욕동의 구조

① 타당한 목표의식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범죄사회학자가 논하는 사회무규범은 *social anomie* 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이 상실된 혼란상태”를 말한다. 아노미의 해석은 사회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의 2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문화구조 즉 특정사회의 행동규범체계의 붕괴이며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과의 사이에 커다란 갭이 생기는 경우이고, 후자는 개인의 도덕관념이 쇠퇴하는가 또는 혼란된 심적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이같은 아노미의 발생조건은 ① 급격한 사회변혁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의 경우, ② 하부집단의 문화갈등에 의한 경우, ③ 무법자 *out-law* 의 존재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목표가치와 제도적 수단의 균형을 상실하여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회화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② 가통(加痛)과 물질파괴의 과잉행동이다. 이것은 청소년기에 갖기 쉬운 욕구불만과 좌절감이 적절한 해소방법을 찾지 못하고 정신긴장의 발산책으로 인간 또는 동물을 해치거나 어떤 물건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

태를 말한다. 청소년들이 무모한 파괴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인간의 정서적 부적응은 욕구좌절 및 갈등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같은 욕구좌절과 갈등상태에 놓이게 되면 생체내의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에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수단을 쓰게 된다. 이같은 과정을 적응기제라고 하는데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합리적인 적응기제를 이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괴욕동이 발동되는 것이다.

③ 힘 *power*, 소비에 대한 과잉반응이다. 청소년기에는 타인 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하고 또 자기의 위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현시욕(顯示欲), 과시욕을 발동하는 경우이다. 소비과잉은 유흥비 등을 과용 지출 또는 낭비로 과시욕을 충족시킨다.

이것은 퇴폐풍조와 과소비사치풍조와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황금만능, 일확천금, 한탕주의, 출세주의, 학벌주의, 향락주의, 성적퇴폐, 허식문화 등이 사회생활에 크게 나쁜 영향을 주어 청소년의 의식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2) 파괴심리학적 측면

여기서는 공격목표에 대한 대상과 방법의 측면을 든다. 청소년의 공격성은 시대적 배경과 가치체계에서의 태두리에서 공격성을 적절히 승화해 왔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의 청소년범죄의 수법과 범죄양상은 잔인하고 흉악한 정도로 폭악하지 않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범죄행위의 공격목표가 변질되어 대상목표와 방법에 있어서도 크게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① 약자에 대한 공격성이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범죄현상을 보면 공격에 필요한 대상

에 국한하지 않고 남녀노소 구별없이 선량한 시민을 닥치는대로 인질로 하거나 살인하는 비인도적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은 쉽게 목도할 수 있다. 청소년은 신문보도, TV·영화에서 방영되는 폭력방법, 살인수법 등 대담하게 흉폭화 하는 장면과 내용 등이 연일 시청각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다. 어린이 유폐살인과 성폭행살인, 가족 앞에서 유부녀를 성폭행 하는 가족파괴범 등 남녀노소, 노약자에 대한 범법행위는 확실히 과거의 범죄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양상들이었다.

② 무방비, 침묵의 피해자에게 가하는 공격성이다. 피해자가 경찰에게 알려거나 고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강간, 집단유괴, 가정파괴범이 그 좋은 예이며 그만큼 정신적 고통도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보복자에 대한 공갈, 협박이나 보복살인 등이 있고 인질납치의 범죄도 그 좋은 예이다.

③ 흉기 사용이다. 요즘 범죄소년의 흉기 사용이 부쩍 늘고 있다. 흉기는 우월감의 상징이기도 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흉기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상해나 살인에 까지 유발하는 필요악의 도구이기도 하다. 청소년 중에는 칼과 총기 등에 동성애를 느껴 발기와 사정하는 예가 적지 않다는 정신분석학자의 주장도 있음을 보면 청소년들의 흉기소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단속이 요망된다.

3) 반응성 파괴심리

① 부의 학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잠재적 피해자로서 아버지의 학대와 폭악성에 반항심리를 조장하고 이에 따른 증오감과 적대감의 심적 의식이 형성되고 이러한 의식과 감

정이 타인에게 전이하여 흉악성을 발휘한다.

② 극도의 불우환경에서의 성장은 개체에 따라 범죄자로 성장할 수도 있다. 빈부의 격차와 인간관계의 소외에서 오는 열등감, 좌절감이 때로는 사회전반 또는 인류전반에 대한 증오로 발전하여 폭력, 파괴, 범죄, 살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③ 주변환경의 소란과 무질서는 때로 소란행위와 파괴쾌감을 수반케 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술주정, 싸움, 고성방가, 약물남용, 부녀희롱, 성적추행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광란하여 무엇인가 일을 저지르고 파괴하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러한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한다. 때로는 이러한 행동이 폭력과 살인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4. 반사회적 이상성격

일반적으로 정상소년과 비행소년 또는 범죄소년을 비교할 때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비행소년이나 범죄소년의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성격특징이 대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① 사회규범의 무시
- ② 정서적 반응의 결핍 및 파괴성
- ③ 특정사건에 대한 고도한 집착성
- ④ 각종의 망상정후
- ⑤ 지나친 정서적 흥분 및 반항성
- ⑥ 열광적이며 과도한 낙천주의
- ⑦ 현실에 냉담, 무관심, 괴리
- ⑧ 사고와 행동의 불일치

따라서 이상과 같은 반사회적 이상성격에 나타나는 청소년들은 범죄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 사회적으로 고정된 범죄행동으로 물고가는 요인중의 하나는 양심 즉

초자아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무억제적 성격에다 동시에 양심의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면에서는 무적응반응, 즉 정서장애는 환경조건이 바뀌어 적응이 잘 되면 점차로 없어지나 고정화가 강화되어 있으면 그 제거가 어려워져 이른바 인격의 항상성(恒常性)으로서의 색체가 굳어져버려 고정된 비행성, 상습적 범죄성 더 나아가서는 이상성격으로 이행한다. 범죄소년이 정서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불안감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Healy 이래 많은 학자에 의해 실증되고 있다. Healy는 143예중 131예가 현저한 정서장애가 있음을 발견하고 범죄소년과 무범죄소년과의 두 집단간의 다른 점은 ① 자기불만족감(45예), ② 열등감(52예), ③ 애정결핍감(53예), ④ 가정부조화감(43예), ⑤ 동기간 갈등(43예), ⑥ 심층갈등(19예), ⑦ 무의식의 죄악감(11예)을 들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2예에 대해서 Healy는 불량교우, 불량가정의 영향을 중시하고 있다.

S. Gluech에 의하면 대부분의 범죄소년들은 범죄가 없는 소년에 비해 반항적이며 권위에 대해 양면가치적이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원한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적개심과 의심심을 가지며 이것으로 인해 파괴성, 가학적 경향, 심한 정서변동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더우기 깊은 뿌리는 정서역동성으로 정서적으로 항상 불안정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S. Gluech의 범죄예측연구에서 선별된 15개 예측인자중 Rorschach Test에 의한 인성특성 5개 인자는 ① 사회적 주장, ② 반항심 ③ 의혹성, ④ 파괴성 ⑤ 심한 정서변동성을 들고 있으며,

또한 정신의학적 면접에 의한 인성특성의 5개 인자는 ① 모험성, ②행동의 외향성, ③피암시성, ④완고성, ⑤정서불안정을 들었다.

또 다른 면에서 본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이상성격의 형성은 규범성의 장애, 퇴폐풍조와 같은 사회병리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소년들은 그가 자라온 가정환경, 지역사회환경, 문화오락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어떤 집단이나 사회이전 일정한 준거규준이 있기 마련인데 그가 속하는 집단, 사회가 반사회적 규범 또는 반사회적 집단태도로 형성되어 있을 때는 외향적 공격성, 범죄현시성(犯罪顯示性), 비도덕성이 강해져 집단싸움, 폭력범죄, 강도강간 등의 흉악범죄 유발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IV.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분석

우리는 “성의 본질은 생식에 있고 결혼의 목적은 가계계승자를 이어가는데 있다”라는 가부장제의 유교적 전통윤리를 대전제로 하는 사회규범을 절대시 해왔다. 더우기 남녀교제의 자유, 성의 자유는 현존하는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에 저촉되고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8·15 해방후 구미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젊은 이들이 좀 더 개방적 시야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청소년 성문제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까지는 초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이른바 자유로운 남녀교제, 성개방풍조가 생기면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청소년의 성문제, 성범죄가 크게 상승하여 심각한 범죄양상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1970년 중반이후에 있어서 양적인 증가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질적인 성범죄도 크게 변화하여 대개의 경우 10대 후반의 단독범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피해자도 같은 또래 연령층의 여자들이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중반과 후반에 들어와서는 가해자의 연령이 연소화하여 중학생의 강간범죄가 증가하였으며 거기에 피해자의 대상도 여중생, 여자어린이 대상으로 확대되고 심지어는 유부녀도 포함하는 다양한 대상으로 한 집단윤간, 강간살인, 가족파괴범으로까지 점차 성범죄 흉악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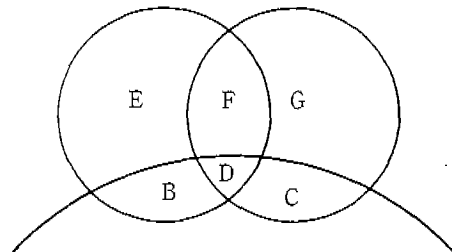
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하는 데는 우선 동기면에서 보면 크게 두가지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단지 성적 호기심과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적 동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것과 다른 비성적인 동기 즉 욕구불만, 보상행동, 반동형성, 의존성 등의 방어기제 또는 적응기제에 의한 성적 동기가 결합하여 행해지는 경우이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성범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단독 성범죄자와 도착적 성범죄자인 경우는 개체의 비정상적 또는 병리적 성의식 형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성장과정 중에 이미 비뚤어진 성적, 병질적인 성격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 집단적 성범죄는 주변의 성자극환경으로 인한 성적 사회병리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불량집단이나 범죄집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가능성이 높다.

1. 성범죄자의 분류

Ellis에 의하면 성범죄자 중에는 정상적인 사람과 이상적인 사람이 있으며 이상적인 사람중

에도 심리적으로 이상적인 사람과 성적으로 이상적인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 성범죄자

A: 정상적인 성범죄자이긴 하지만 때로는 친구의 유혹에 의한 집단강간(윤간)의 공범자가 되는 자이다.

B: 성적으로 이상한 성범죄자의 예로서는 성적으로 과도한 신경과 겁장이로 여자친구를 갖지 못하고 절시증 또는 노출증을 가진 자이며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정상이며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직장을 가진 자이다.

C: 심리적으로 이상이 있고 성적으로 이상이 없는 성범죄자인데 예컨대 분열병자의 공연자위와 스트리킹등의 공연왜설자를 가리킨다.

D: 성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상이 있는 성범죄자로서 강박적으로 유아성애 또는 유아성폭행, 강간을 반복하거나 쾌락살인을 반복하는 자이다.

E: 동성연애자, 복장도착과 같이 법률상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으나 현대의 성문화로 보아서는 성적이상(성적일탈)행동으로 보고 있다.

F: E의 경우와 거기에 심리적 장애를 가진 자이다.

G: 흔히 말하는 정서장애자, 정신장애자를 말한다.

이상에서 볼때 흉악한 성범죄자는 D에 해당하는 성적, 심리적 모두에 있어서 이상성을 가진 성범죄 특질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2. 성 범죄자, 성 피해자의 특성

① 유아기, 아동기 성장과정에 지극히 불우한 전력이 있거나 생육사에 결함이 있어 정서적 장애와 성의식 발달에 문제가 있는 자이다. 이들은 일찍부터 성경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동기나 청소년기 초기단계에서부터 심야외출, 불순이성교우, 유흥가 배회, 가출, 고고장 출입 등의 경향이 있다.

② 가정의 복잡한 성관계를 들 수 있다. 특히 부모의 부도덕한 성문란, 근친상간, 사생아, 출생, 난잡한 성의 사생활 등이 있는 가정, 부모를 말한다.

③ 왜곡된 성의식과 성경험과의 관계이다. 육체의 성숙이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성적 욕구에 탐닉하는 경우와 시청각을 통한 외적 성적자극에 지나치게 이상성욕을 느끼고 왜곡된 성의식으로 고정화된 소유자를 말한다.

④ 알콜과 대마초 등의 복용이 성적욕망의 촉진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성적 욕만에 대한 억제력과 자제력을 약화시키고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감소시킨다. 알콜과 대마초에 의해 성행위와 성범죄를 감행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되는 수가 많다.

3. 성적 변질자, 성욕 이상자의 특성

① 대체로 성적변질자는 과잉성욕형이고, 성욕이상자 또는 도착성욕자는 성호르몬의 과잉보호나 성적으로 열등형에 속한다.

② 남녀와의 인간관계에서 상대와의 결합이

순조롭게 관계형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이성교제의 기회가 거의 없거나 이성과의 인간관계 형성에 전혀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성격특징을 가진 자이다.

③ 강간살인자와 같이 성욕에 있어서 특수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들은 살해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같은 살해본능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쾌락과 성적격정(性的激情)과의 동시의 결합”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④ 이런 사람들은 정상 사람들의 성세계와는 달리 별개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상인과는 달리 엉뚱하고 괴상한 성세계의 도착생활을 환상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다.

4. 성적 중독자, 성적 기벽자의 특성

① 일명 성적난잡자, 성적무절제자라고도 하며 색정과, 엽생광이라고도 한다. 소위 돈판형이나 카사노바형이 여기에 속한다.

② 이들은 접촉정신병질자로서 어릴때부터 어머니와 자기와의 실제적 결합과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괴리되거나 부적절 했을 때 생기는 이상성에 연유된다. 성적으로는 이상은 아니나 대신 접촉충동에 있어서 병들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능력이 결핍된 사람이다.

③ 따라서 이자일체적(二者一體的) 욕구와 갈망이 지나쳐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서 접촉망상이 지나치게 과대하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곁에 있어야 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러면서 환멸과 실패를 되풀이하며 대상도 자주 바꾸는 습성이 있다.

④ 이로 인하여 접촉대상과의 결합없는 살

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태업, 자기파괴가 생긴다. 예컨대 애인의 배신에 대한 살인이나 인질난동 같은 것이 발생하기 쉽고 특히 흉악범죄자의 배후에는 반드시 내연의 애인이 존재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⑤ 이들의 충동구조를 보면 ㉠ 자기를 인정(사랑, 섹스)해 주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의존형이다. ㉡ 고독에 견디지 못하는 외지박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서 내적규범의식이 상실된 자이다. ㉣ 성적 욕구에 대한 억제력이나 자제력이 아주 결여되어 있다. ㉤ 이들은 대식가인 동시에 술, 담배, 본드나 대마초, 마약 등을 습관적으로 남용하는 버릇이 있다. ㉥ 자기 소외감, 자기태업, 자기파괴의 성향이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문제, 성범죄를 저질러 가능성을 안고 있다. ㉦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며 어떠한 남자에게도 쉽게 몸을 던지는 화냥끼와 윤락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V. 청소년범죄 방지를 위한 방향모색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를 방지하는데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나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관심을 가지고 연계하고 협의하는 자세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과제이다. 특히 사회방어적 기능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은 경찰의 역할은 비행예방 방지에 있으므로 소년경찰의 활성화, 전문화, 과학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년범죄자에 대한 인

간성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보호와 갱생보호의 효율화로 재범방지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비행예방에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 ① 비행위험성의 예방 (조기발견), ② 피해발생의 예방(방법교육), ③ 원인발생의 예방(선도활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범죄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배경과 요인을 살펴보면 그 하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도록 유발하는 요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로부터 멀리하고 억지하는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유발요인으로는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들 수 있다. 내적요인은 개인의 내면에 관계되는 것으로 청소년의 소외감, 불만감, 좌절감, 불건전한 욕구 등에 의한 개인의 심리적 갈등, 존재감의 상실, 인간관계의 부조화, 부정적 자아상, 탈출심리 등 개인의 자아의식 결여에 크게 문제삼게 되는 요인이다. 후자의 외적요인은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환경조건이 문제인데 청소년 주변의 유해한 유흥향락업소, 음란만화, 음란비디오, 성인디스크장, 전자오락실 등의 범죄를 유발하기 쉬운 유해한 사회환경, 퇴폐환경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의 억지적 요인으로서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청소년에게 올바르게 건전하게만 지도하고 교육하면 범죄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억지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컨대 근면성, 성실성, 참을성, 극기심, 책임성, 자율성, 협동성, 사회성 등의 건전한 정신과 덕성의 함양을 말하며 이같은 정신과 덕성이 결여되면 불건전한 욕구발산과 부적응 행동으로 비행과 범죄를 억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것은 성장과정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의 장에서 올바르게 지도되어야 하며 또한 학교와 사회교육단체를 통해서 집단활동, 수련 활동 등으로 청소년 건전지도를 강화하면 억지 요인으로 효과를 보게 된다. 후자의 외적인 억지요인으로서의 법규제의 적용, 사회적 규제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범죄를 밖으로부터 방지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엄격히 다스리고 준법정신을 교양하는 지도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선도 및 규범적 분위기 조성 등 외적인 억지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상의 범죄예방의 3단계를 기본정책으로 삼고 청소년범죄의 흉악화를 발생케 하는 유발요인과 이를 방지하는 억지요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범죄동향에 적절히 대응하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① 문제소년의 조기발견체제의 확립과 조기보도활동을 촉진한다.

소년경찰과 학교, 직장, 청소년단체, 지역사회인의 협력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선도시범지구, 비행방지구, 방법모델지구(범죄다발지구)를 지역진단을 통하여 설정하며 지역단위의 지역조직화를 통한 적극적인 선도활동,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서울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4등분하여 그 중심지에 청소년선도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경찰 보도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치안본부 소년과에 조사관제, 각 경찰국 소년계에 보도관제 직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1일 어머니선도활동”을 전개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② 가정에서의 자녀훈육방법 및 자녀교육관에 관한 지침성 작성과 사회교육을 통한 지도

계몽을 실시한다.

문제가정을 막고 핵가족화와 가정민주화시대에 맞는 자녀의 훈육방법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및 자녀교육관의 정립문제에 관한 지침서를 각계 권위자의 연구모임을 통해서 작성함과 아울러 부모들 대상으로 부모교실 운영, 토론편입, 지도자료 배포 등 사회교육 기회를 넓혀 지도보급 한다.

③ 청소년을 위한 각종 수련시설, 연수시설과 청소년회관, 유스호스텔, 스포츠시설 등의 집단활동시설을 증설하고 이를 통한 청소년의 자아정체意識의 확립과 정신력 개발에 역점을 둔다.

청소년의 집단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심신 단련과 건전한 자아의식 및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각종 수련, 연수, 예술, 스포츠활동에 의하여 청소년의 자질향상, 친교관계, 자아실현을 도모함은 물론 자주적이고 창의력을 개발시킨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인내력과 극기심 배양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특기할 것은 아무리 시설이 잘되어 있어도 유능한 지도자와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근로청소년, 미진학청소년 더 나아가서 범죄소년에게도 확대 실시되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④ 도시에서의 유흥향락지구, 우범지구, 슬럼지구, 범죄다발지구에 대한 방법체계 강화와 정화시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도시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범죄추방의 일환으로 범죄유발 및 발생의 소지를 과감하게 정비 정화하는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러한 지역에서의 청소년의 불량서를 조직 및 범죄집단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집단의 형성방지와 해체보도에도 각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⑤ 유해풍속업소, 퇴폐향락업소의 난립에 대한 단속을 일층 강화하고 유해 대중매체의 정화방책에도 실효를 견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지역마다 지역상점가변영회가 중심이 되어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자율정화결의로 큰 성과를 견우고 있다.

⑥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활동의 강화와 흥기소지 소년에 대한 가두검색의 강화이다.

최근에 늘고 있는 청소년의 강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행서클, 범죄집단, 폭력조직의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함으로서 범죄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가하며 또한 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해체보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청소년의 범죄발생과 피해신고를 신속히 연락처리하기 위하여 통·반단위로 청소년피해신고소를 지정 운영하여 근처 파출소와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할만 하다.

⑦ 청소년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발달단계에 따른 올바른 성의식의 형성과 성의 바른 이해, 성적인간으로서의 인격적 성숙을 돕는 지도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중학생시기의 성비행은 일반적으로 일과성인 경우가 많으며 조기발견하여 지도 교정을 하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 만일 탈선적인 성관계와

발각되지 않고 방치하면 강간에 의한 행동패턴으로 나타나 그후에도 탈선적 범법행위를 추구하고 있어 되풀이 하는 습성이 있다. 여학생 들에게는 성적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 지도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불순이성교우나 남녀혼숙, 집단강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원, 야산, 여관, 캠핑, 심야외출, 유흥가매회 등에 철저한 순찰활동을 통해서 발생의 소지를 미리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대부분은 술, 본드, 대마초 등 환각상태에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한다.

⑧ 각종 청소년범죄 유발요인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과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수립한다.

청소년범죄에 관한 각종 범죄유형의 분석적 규명과 발생요인 및 범죄화과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범죄예방대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통한 범죄예방 및 방지대책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부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흉악범죄는 현재의 우리 사회의 병폐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문제연구모임을 통한 심층분석도 병행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김종국, 전광문의(1973), 소년비행의 예측, 청 소년회관.
전광문의(1975), 최근 소년비행양상의 변화와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전광문의(1977), 불순이성교제소년의 불량화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전광문, 김종국(1978), 소년범죄의 흉악화에 관한 조사연구, 치안본부.

전광문(1981), 청소년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
 전광문(1983), 우리나라 청소년 성문제현황, 한국교육개발원.
 서봉면(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심리학적연구, 박사논문.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1975), 청소년백서.
 국무총리기획조정실(1980), 청소년백서.
 청소년대책위원회(1985), 청소년백서.
 체육부(1970), 청소년백서.
 中田修(1967), 犯罪と精神醫學, 東京, 創元社.
 吉益修夫(1958), 犯罪學概論, 東京, 斐閣.
 遠藏辰雄(1974), 非行心理學, 東京, 朝倉書店.
 樋口幸口(1972), 犯罪の心理, 東京, 大日本圖書.
 平尾靖(1974), 범죄と非行の心理, 東京, 川島書店.
 水島惠一(1964), 非行臨床心理學, 東京, 新書館.
 望月一宏(1979), 少年非行の動機と心理, 東京, 有信堂.
 中西信男(1979), 青年の心理と指導, 東京, 福村出版.
 我妻洋(1979), 少年の事例研究, 東京, 誠信書房.

濱島朗(1950), 現代青年論, 東京, 有斐閣.
 宮城音彌(1973), 異常社會の心理, 東京, 中山書店.
 Allport, G.(1937), *Personality*, New York, Holt.
 Erikson, E.H.(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75), Eysenck, H.J. (1964), *Crime and Personality*, Routledge.
 Glueck, S. & E.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Harvard Univ., Press.
 Hewitt, L.E. & Jenkins, R.L.(1964), *Fundamental Patterns of Maladjustment*, state of Illinois.
 Newcomb, T.M.(1950), *Social Psychology*, New York, Dryden Press.
 Nye, F.I..(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Shaffer, L.F. & Sholhen, E.J.(195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Houghton Mifflin.
 Symonds, P.M.(1964), *Dynamics of Human Adjustment*, New York, Norton.